

GE · 신에츠, 타이 실리콘 가동

내 · 외적 요인으로 당초보다 늦어져 ... 지나친 공급과잉 우려

Shin-Etsu Chemicals과 GE Toshiba Silicone(General Electronic Toshiba Silicone)의 Silicon 합자투자가 2004년 하반기에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02년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국 및 아시아의 시장을 타겟으로 아시아 최초의 Silicon Monomer 합작투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4월 생산개시라는 당초계획과는 달리 내 · 외부적 방해 요인으로 플랜트 건설에 차질이 생겨 2004년 하반기로 생산시기가 늦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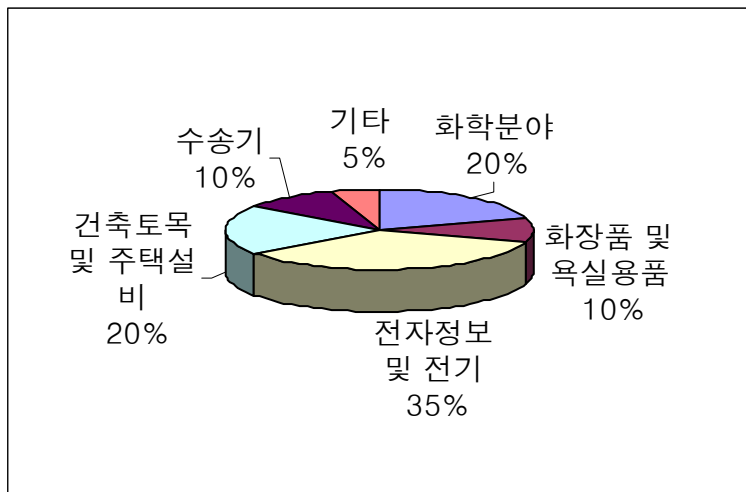
플랜트가 세워진 곳은 타이로 인건비와 전력소모가 많은 Silicon의 공정 특성에 가장 잘 부합되는 곳이라는 평가이다.

타이의 Silicon 플랜트는 Siloxane 환산 7만톤 정도이며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Shin-Etsu의 Silicon 생산능력은 20만톤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Shin-Etsu와 GE는 Silicon 원천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판매 자회사가 진출해 있는데 2008년 북경올림픽과 박람회 등으로 Silicon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ilicon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화학분야, 화장품 및 욕실용품, 전자정보 및 전기, 건축토목 및 주택설비, 수송기 등 이용되는 용도가 다양하다.

Silicone의 수요비중



그러나 세계적으로 Silicon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Silicon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앞으로의 시장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5/06>